

# 동족 대결과 탄도미사일 개발 소동

— 남조선정세 전문가 량세철과 나눈 대담 —

지난 3월 23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도적고양이마냥 세상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500km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감행하고 얼마간의 시일이 지난 후에 그에 대하여 공개하면서 마치 하늘의 별이나 따온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가소롭기 그지없는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처사를 놓고 본사 기자는 남조선정세전문가 량세철과 대담을 가졌다.

기자: 현 남조선당국이 감행한 이번의 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론하기 전에 력대 남조선당국이 벌려온 탄도미사일개발과정에 대하여 알려주시 바랍니다.

량세철: 남조선에서 탄도미사일개발은 《유신》독재자가 《자주국방》의 미명하에 벌린 《변개사업》의 일환으로서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다.

《유신》독재자는 1971년 12월 《1974년까지 단거리전술미사일을 개발 및 생산하고 1976년까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할데 대한 국비지령을 남조선의 국방과학연구소에 떨구었다. 이에 따라 남조선의 국방과학연구소는 비밀리에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여러 차례의 실패끝에 1977년 9월에 사정거리가 180km인 《백

곰》이라는 명칭의 탄도미사일을 만들어내었다. 이후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1987년 《백곰》보다 성능이 더욱 개선된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그 명칭을 《북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으로 《현무》라고 불렀다. 1999년 4월에는 사정거리가 300km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사정거리가 500km인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다.

기자: 남조선당국의 탄도미사일개발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량세철: 한마디로 동족과 끝까지 대결하고 공화국복반부를 군사적으로 선제공격하자는데 있다. 1971년 12월 《유신》독재자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라고 지시를 내릴 당시 조선반도에서는 통일의 기운이 여느때없이 높았다. 기자들무도 아시다싶이 1972년 7.4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는가. 이를 전후해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데 대한 당국의 지시가 떨어지고 그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다그쳐진것은 바로 통일을 반대하고 동족대결을 위해서였다. 또한 《유신》독재자가 처음으로 내린 국비지령에는 명백히 북의 《주요군사기지들과 령들이 사정거리가 500km인 미사일을 개발하고 북의 어느 지역이나 다 타격할수 있다고 내놓고 떠들어대고있는것도 그들의 탄도미사일개발이 철두철미 동족대결의 광기가 빚어낸 범죄적인것임을 알수 있게 한다.

지금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미사일들이 연구개발되고있지만 오랜 세월 한피출을 이어온 자기 동족을 겨냥하고 치기 위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실전배치하고있는것은 오직 북한에 미칠대로 미친 남조선호전세력뿐이다.

기자: 그러면 남조선의 탄도미사일들은 자체로 연구개발되고있는가.

량세철: 그것은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처음부터 미국에 의거해서 탄도미사일들을 개발해왔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개발하고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술지원단을 동원시켜주고 남조선의 기술자들을 미국방부 및 록, 해, 공군연구소는 물론 군수공장들에 초청하여 기술을 전수하도록 하였다. 그런가하면 탄도미사일개발에 필요한 많은 기술문건들도 넘겨주었다. 더우기는 남조선에서 탄도미사일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나이코 허를레스》탄도미사일을 이관하여 남조선이 그것을 본따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남조선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백곰》탄도미사일은 바로 미국의 《나이코 허를레스》탄도미사일을 모방하여 만든것이다. 또한 미사일개발에 관한 기술과 부품을 지원한다는 《미사일기술이전에 관한 대미보장서한》(일명 미사일량해각서 또는 미사일지침)이라는것을 통해 남조선에 탄도미사일기술들을 체계

적으로 보장해주었다. 기자: 남조선미국간의 《미사일량해각서》라는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한다. 량세철: 남조선미국《미사일량해각서》라는것은 《유신》독재자가 심복의 총에 맞은 《10.26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체결되었다. 이 문서의 기본내용은 남조선이 사정거리 180km이상, 탄두중량은 500kg이 넘는 미사일은 개발도 보유도 하지 않는 조건에서 미국이 미사일개발에 관한 기술과 부품을 지원한다는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미사일량해각서》를 맺은것은 한마디로 세계여론을 기만하기 위해서이다. 당시 동서간의 《평전》은 심화되어 군비경쟁이 가열되고있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이 탄도미사일개발에 열을 올리면 그것은 아시아 주변나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지마다 탄도미사일개발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세계제패를 추구하는 미국이 이것을 좋아할리 없다. 이로 부터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자극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사정거리가 180km로 제한되는 탄도미사일들만 개발보유한다는것을 명시한 《미사일량해각서》라는것을 공표한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다. 사정거리가 180km인 탄도미사일들만 개발보유한다고 하였지만 실지 그 막뒤에서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묵인하에 사정거리를 늘린 미사일들을 계속 연구개발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군수독점체들이 남조선에 사거리가 300km를 넘는 부품들을 넘겨주는것을 보고도 못본척 하였고 또 1999년 4월에 남조선당국이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실시 사정거리가 300km라는것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해 침묵을 지켰었다. 이에 대해 세계여론들이 분분히하자 2001년에 미국은 《미사일지침》을 개정하여 남조선의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300km로 연장시켜주었다. 리명박역도에 집권하여 반공화국대결광기가 극도에 이르던 2012년 10월에는 또다시 《미사일지침》을 개정하여 사정거리를 800km로

까지 연장시켜주었다. 이를 력대고 남조선당국이 얼마전 사정거리가 500km인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것이다. 기자: 동족을 노린 남조선의 탄도미사일개발시험과 실전배치에 대해서는 비호하고 부추기는 미국이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와 정상적인 로켓발사훈련에 대해서는 찍하면 《도발》이요, 《위협》이요 하면서 북다소동을 피우고있다. 앞뒤가 다른 이런 행동을 하고있는것이 너무도 철면피한 2종기종이 아닐가.

량세철: 그래서 어찌구비가 없는것이고 분노할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인공위성을 쏘올리고 탄도미사일발사를 하지만 미국은 유독 공화국의 인공위성발사와 로켓발사만 문제시하며 아무배기름을 칠고있다. 공화국은 당당한 주권국가이다. 정상적인 로켓발사훈련도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의 권리이다. 더우기 세계최대의 미사일대국인 미국

이 지난 수십년간 미사일과 핵으로 우리 공화국을 수시로 위협해온것만큼 공화국이 로켓를 개발하고 발사훈련을 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자위의 조치이다. 탄도미사일이라면 그로록 놀라서 펄쩍 뛰는 미국이 남조선이 500km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수년안에 800km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겠다고 벽적 고아내는 데 대해서는 일언반조도 하지 않는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일변도정책을 잘 보여 주는것이다.

다시말하지만 공화국의 로켓트들은 미국의 침략전쟁위협으로부터 조선반도와 겨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것이다. 반면에 남조선호전세력이 개발하고있는 탄도미사일들은 외세의 비호와 협력을 받아 공화국의 전령토와 동족을 타격하기 위한것이다.

조선반도정세를 위협하는 남조선당국의 범죄적인 탄도미사일개발소동을 묵인비호해준 사실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것만큼 미국은 이제는 더이상 우리의 정당당한 위성발사와 자위의 로켓트발사에 대해 할말이 없게 되었다.

기자: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어서 감사하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북이 먼저 약속을 쥔다.》느니, 《도발에 대한 대응》느니, 뭐니 하며 악화된 북남관계의 책임회피와 전가에 목청을 높이고있어 민심의 거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버록도 낮가죽이 있다는데 남조선당국이 과연 이런 주장들을 들고나올 체면이나 있는가 하는것이다.

둘이켜보면 새해의 첫 아침 공화국에서 울려나온 판계개선의 확고한 의지와 그에 따른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 편이어 발표된 공세사한에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진정성》이

우 뭐요 하며 온당치 못한 태도와 거부적인 립장을 보인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온갖성있는 노력에 의해 북남고위급접촉이 이루어지고 서로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한 합의문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잉크가 미처 마르기도 전에 남조선군부는 대북심리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화국을 비방중상하는 빠라살도놀음을 벌리었다. 그런가하면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반공화국도발을 감행하도록 교묘하게 부추긴것도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행위를 끝장내자는 동족의 진정어린 호소에 《언론의 자유》를 떠들며 계속 외면하다 못해 현 남조선당국자는 해외에 나가서까지 북의 《경제난》이 어떻소, 《매고픔》

이니 하며 공화국에 대한 악담을 앞장서 해왔다.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역행한 남조선당국의 대결적인 자세와 립장은 외세와 아합하여 근 두달동안에 걸쳐 진행해온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통해 절정에 이르렀다.

관계개선을 하자고 하는 마당에 와서까지 외세를 등에 업고 적대적인 군사연습을 벌려놓는다는것자체가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 일인

이 여기에 대대적으로 투입되었다.

한동안 《독수리》훈련을 두고 공화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조절》이요 뭐요 하면서 그대 대한 언론공개를 삼가하던것도 다 웨버리고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저들의 광기어린 불장난소동들을 언론을 통해 적극 공개하면서 북침전쟁열을 더욱더 고취하였다. 공화국북반부 해안지대로로의 상륙을 위한 교두보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상륙작전수행능

동원되는 등 1993년 《립스 퍼리트》합동군사연습이후 21년만에 최대규모였다는 사실들과 그 목적이 철저히 공화국의 심장부를 겨냥한것으로서 명백히 침략적이고 공격적인것이라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또 이것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최대로 격화시키면서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험을 조성시키는 행위라는것을 그 누가 시인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군사상식으로 보아도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은 상대방

에게 평화가 아니라 전쟁불구름을 몰아오는것이 앞뒤가 판이하게 다른 남조선당국의 행동이다.

진정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것이 누구이고 그것을 해치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지 훌러온 이해의 날과 날들은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까지도 남조선당국은 《신뢰》니, 《평화》니 하는 면사포를 뒤집어쓰고 마치도 《통일의 사도》인양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내외여론을 오도하는 가소로운 놀음에 매달리고있다. 뿐만아니라 아직까지도 짬만 있으면 공화국을 헐뜯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 전쟁을 고취하는 반공화국소동을 험악하게 벌리면서도 비방중상함들의 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잘못들이 공화국인것처럼, 저들의 평화파괴행위가 그 누구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것처럼 요란히 떠들고있다.

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것처럼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에 로골적으로 도전하여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로 몰아가고있는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본사기자 김련옥

## 긴장격화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데 그 규모와 목적, 내용은 훨씬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어서 그야말로 화해와 단합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었다. 이번에 진행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북침선제공격을 노린 《맞춤형억제전략》을 처음 적용하는 군사훈련으로서 공화국의 심장부를 겨냥한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포항에서 《쌍룡》련합사륙훈련이 진행되었는바 3월 27일에 시작되어 무려 12일 동안이나 진행된 이 훈련은 《평양전령》을 노린 전형적인 북침선제공격훈련이었다. 그 규모도 사상최대였다. 오끼나와주둔 미3해병원정단과 남조선군해병대 등 1만 2 500여명의 침략무력과 직승기강승상륙함, 구축함 등 군함 7척과 《CH-53S》수송헬기, 《C-130》수송기, 고속기동형수직리착륙수송기 등 최신공격장비들

력을 높이기 위해 상륙돌격장갑차, 공기방석정 등에 의한 상륙훈련을 맹렬히 벌렸는가 하면 《CH-53S》수송직승기와 《C-130》수송기들이 후방침투입무를 맡은 병력과 물자들을 대대적으로 실어 나르고 군수물함선들은 땅크와 각종 군용차량, 병력들을 해안선에 부리우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소동을 벌리었다.

특히 주목을 끈것은 남조선에 날아든 미해병대의 수직리착륙직승기 《MV-22오스프레이》 22대가 훈련장상을 돌아치며 북침화악배를 질게 풍긴것이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두고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그 무슨 《년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파렴치한 주장을 내뿜었지만 지난해에 비해 무려 5배나 되는 고속기동형수직리착륙수송기가

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이며 공공연한 전쟁도발책동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남조선당국이 추구하는것이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결과 전쟁을 통한 반공화국암살이라는것이 날날이 증명되게 되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경기도 평택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선반도를 침략전쟁터로 내밀기다 못해 합동군사연습에 투입된 미해병대를 위해 그 무슨 《환영》행사까지 벌려놓는 남조선당국을 강력히 규탄했고 언론론들도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해도 너무하다.》고 하며 비난을 퍼부었겠는가. 공화국을 외쳐보겠다고 미쳐달뤼는 외세를 등에 업고 그의 돌격대, 하수인이 되어 동족과는 화해가 아니라 대결을 취하고 이

노를 굴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은 《맥스 썬더》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단하고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라고 단채는 주장하였다.

이날 단채는 경기도 포천의 미군훈련장에서 벌린 시위투쟁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을 자극하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과 같은 것을 고조시키는 《맥스 썬더》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그러나 조선분렬의 장본인인 동시에 조국통일의 가장 악랄한 해방군인 미국은 우리 민족적 화해하고 단합하며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것을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국은 내외여론에 못이겨 줄로는 6.15공동선언을 환영하는척 하였으나 뒤에서는 《무분별한 합의》니, 《전면적검토》니 하며 저들의 불만스러운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부쉬는 남조선집권자를 미국에 불러들이 심히 모욕적인 언사까지 써가면서 《북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라느니, 《북을 잘못 보고있다.》느니, 《미

## 미국은 북남관계개선의 암초 (3) 6. 15통일시대의 전진을 막아보려고

주제89(2000)년 6월 15일, 분렬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북남최고위급회담에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민족사적사건이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세대는 크나큰 기쁨과 환희에 넘쳐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지지찬동하였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칼같이 떨쳐나섰다.

그러나 조선분렬의 장본인인 동시에 조국통일의 가장 악랄한 해방군인 미국은 우리 민족적 화해하고 단합하며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것을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국은 내외여론에 못이겨 줄로는 6.15공동선언을 환영하는척 하였으나 뒤에서는 《무분별한 합의》니, 《전면적검토》니 하며 저들의 불만스러운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부쉬는 남조선집권자를 미국에 불러들이 심히 모욕적인 언사까지 써가면서 《북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라느니, 《북을 잘못 보고있다.》느니, 《미

국의 리해관계를 지키는것이 필요하다.》느니 뭐니 하고 협박하였으며 북남관계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모든 문제를 미국과 철저히 협의할것을 요구하였다. 그것도 부족하여 부위공화당정권은 공화국에 대해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조지》니 하고 함담하고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공공연히 선포하면서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이 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전략에 보조를 맞추데 대해 강박하였다.

특히 북남관계개선을 막아보려는 미국의 발악적책동은 민족화해와 협력의 상정, 《6.15의 숙종자》인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나서서 집중적으로 나타냈다.

2002년 11월 미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라는자는 서울의 미8군사령부에서 남조선의 대표로인 친미반북언론들만 따로 불러 기자회견이라것을 벌려놓고 개성공업지구확공에 대한 립장을 묻는 질문에 《북이 국제합의를 깨고도 다른 나라와 정상적인 거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안된다.》며 로골적인 반대립장을 나타냈다.

미국은 또한 저들의 날강

도적인 《수출관리규정》과 《와세나조약》을 코에 걸고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는 남조선기업들이 컴퓨터를 비롯한 물자들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빗장을 지르는 횡포한것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는 북의 근로자들의 《인권》과 《로동권리》에 대해서 운운하는가 하면 남조선기업가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생산된 제품실현에 장애를 조성하는 등 어떻게 하나 개성공업지구사업에 훼방을 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국은 북남철도 및 도로련결사업에까지 끼여들여 북의 《남침에 리용》될수 있다고 가로막아나서고 분계선을 통한 북남래왕에 대해서 는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내놓고 장애를 조성하였다.

어디 이뿐인가.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관광대가가 《군사비로 전용》된다느니, 《핵과 미사일개발에 사용되어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느니 하면서 훼방을 놓았을뿐아니라 보수페당이 《대북송금금지》을 러뜨리도록 배후조종하여 관광사업을 추진하던 남측기업가를 죽음에로까지 내몰고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금강산관광을

아예 중단시키는 횡포를 감행한것도 미국이다.

2007년 10월의 북남수뇌상봉에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을 때 미국은 더욱 기겁을 하면서 야단법석하였다.

당시 서울주재 미국대사, 남조선장검 미군사령관 등은 《조선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개최는 북의 핵폐기 이전에는 불가능하다.》, 《북남관계개선문제는 남북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유엔군사령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규모경제협력은 6자회담의 효과를 감소시킬것》이라고 하면서 10.4선언의 내용을 조국통일을 위한 3자 또는 그 리행을 가로막아나서온 겨레의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6.15통일시대의 장엄한 진군을 가로막아보려는 미국의 이러한 방해책동은 인류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비렬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너털한 추태이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 북남관계개신과 평화번영의 암초라는것을 똑똑히 증명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 도발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투쟁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 여는 사람들》이 11일 당국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미국남조선 《련합군사령관하여 기자회견을 가지

